

최태원 “초불확실성 시대, 상법개정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

상의 회장 취임 4주년 간담회

기업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강조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우려도
“비대한 규제, 성장에 도움 안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개정과 관련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남는다”고 비판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데 그걸 바꿔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또 다른 ‘언노운(unknown)’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정을 가능한 한 미루게 되기 때문에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으로 조속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불확실성 해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취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너무 많은 비대한 규제는 모든 사람의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키다 보니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고 현재사회 문제를 푸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철학”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간 우리는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고 해외에

수출해 이익을 취해왔는데 이 모델은 거의 수명을 다해간다”며 “통상 압력 문제도 있고, 솔직히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제조를 없앨 순 없고, 계속 가긴 가되 모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어 AI 종속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제조업을 계속 가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타기는 AI”라며 “AI를 어떻게 제조에 도입해 남보다 더 좋은 물건과 제조 능력을 더 많이 잘 갖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AI에 필요한 여러 재료, 소재들을 만드는 것은 잘하지만 AI 전체 소프트웨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년형 올레드 TV. /LG전자

LG전자 올레드 TV 신제품 출시

42형~97형 다채... AI 기능 강화

LG전자가 2025년형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LG전자는 오는 27일부터 LG전자 베스트샵 강서본점, 대치본점 등 국내 주요 매장에서 신제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북미·유럽 등 150개국에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신제품은 ▲프리미엄 라인업 올레드 에보(M5/G5/C5) ▲일반형 올레드 TV(B5)로 구성되며, 42형부터 97형까지 다양한 크기로 출시된다. 디스플레이 알고리즘과 유기 화합물 적층 구조를 개선해 일반형 대비 최대 밝기가 3배 향상됐다. 또 조도와 관계없이 ‘퍼펙트 블랙’을 구현해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AI 기능도 강화됐다. 매직 리모컨에 AI 버튼을 탑재해 시청 이력을 분석하고 최적의 콘텐츠와 화질을 추천한다. AI 에이전트는 음성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과 요청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혜민 기자 hyem@

한화 이사회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참여

한화 이사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화 이사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가결했다. 한화는 지분율(33.95%)에 따라 회사에 배정된 신주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추후 변동가능·5월 29일 발행가액 확정 예정)에 인수한다. 총액 9800억원 규모로, 재원은 보유현금과 금융조달을 통해 마련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외 입찰을 통한 신속한 현지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회사의 성장으로 한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동시에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한화가 배정받은 물량 100%를 인수해 우량 자회사 성장을 지지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고 경영진도 48억원 규모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다른 경영진들도 자율적으로 주식 매수에 참여해 주주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한국엔컴퍼니그룹, 북미 생산량 대폭 확대

조현범 회장, 글로벌 전략 점검 美 배터리·타이어 공장 증설 방침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사진)이 국가 핵심기술력 강화와 미국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방점을 둔 전사적 차원의 글로벌 전략 점검·실행을 주문했다. 특히 시장 변화에 맞춰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26일 한국엔컴퍼니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열린 경영혁신회의와 지역전략회의(RSC)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한 달간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글로벌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계열사·대륙별로 연쇄 개최했다. 회의는 조 회장이 직접 주재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올해 북미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테네시주에 있는 납축전지 배터리 공장

과 타이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배터리 공장은 연간 150만대 생산 능력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프리미엄 AGM 배터리 생산량도 2030년까지 500만대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한국엔컴퍼니는 올해 그룹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납축전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북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축전지는 지난해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룹 실적을 견인했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글로벌 기자 및 열관리 시장 확대에 배터리 사업 성장세가 더욱 가속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엔솔-델타 일렉, 美 ESS 사업 맞손

가정용 시장 4GWh 규모 공급 예정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손잡고 미국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4인 기준 약 40만 가구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향후 주택용 뿐만 아니라 전력망, 상업용 ESS 시장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다. 인버터,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며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ESS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생산라인을 갖춰 올해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리더십과 현지 생산 역량’, 델타 일렉트로닉스의 ‘전차,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올해 하반기 내 하이브리드 인버터(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를 통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가 탑재된 차세대 주택용 LFP(리튬·인산·철) 올인원 제품을 미국 내에서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두산에너지빌, 체코 대통령 ‘스코다파워’ 방문

체코 원전사업 기대감 고조

체코 대통령이 두산에너지빌리티 자회사를 찾으며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각) 체코 플젠에 위치한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플젠 지역 내 주요 산업체를 순방하는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한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증기터빈 생산 설비를 살펴보고, 체코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관련 두산스코다파워의 준비 현황과 두산에너지빌리티로부터 이전 받을 예정인 발전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체코는 신규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두산스코다파워는 증기터빈을 공급하고, 원자로, 증기발전기



지난 25일(체코 현지 시각)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왼쪽 첫번째)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왼쪽 두번째)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증기터빈을 살펴보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원전 주기는 한국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페트르 파벨 대통령에게 증기터빈 제작 역량을 직접 선보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